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와 전망

허흠호*

Ⅰ. 서론
Ⅱ.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 추이
  1. 대중국 투자의 전반적 변화 추이와 규모
  2. 업종별, 지역별 투자 변화
Ⅲ.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의 특징
  1. 투자진출 경로의 다양화와 진출 산업의 군집화
  2.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화 가속
  3. 투자산업의 분업구도 변화
Ⅳ.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효과와 향후 발전 전망
  1. 대중국 투자의 효과 평가
  2. 향후 대중국 투자의 발전 전망

이 글은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의 발전을 전망한 글이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양안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단국이지만 현재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어느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발전을 해왔을 뿐 아니라 고도화 되고 있다. 즉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진출 초기인 1988년에 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도 말 현재는 44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진출 산업도 초기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인 하이테크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투자지역도 광동성(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편중 구도에서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의 형태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의 군집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과 판매의 현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만기업의 이러한 대중국 투자 변화는 대만의 수출 증대 및

* 목원대학교 교수 threeh@mokwon.ac.kr

산업구조 고도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의 발전도 양안간의 경제적 상호보완 관계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경제 환경 변화와 대만기업의 지속적인 대중국 투자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산업공동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동안 주로 대만에서 제기되어 왔던 정치체제 및 이데올로기적 문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안간의 제도적 장치, 즉 삼통(通商, 通航 通郵)문제의 미해결과 양안간 경제교류가 여전히 간접교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진일보적 교류발전에 어느 정도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양안관계, 대만기업, 대중국 투자, 투자전략, 중국경제

I. 서론

중국과 대만관계(이하 양안관계라 칭함)는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로서 정치와 군사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를 비롯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왕성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교류는 현재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어느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안교역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에 7천 780만 달러 정도의 소규모였으나 10년 뒤인 1988년에는 27억 2천만 달러로 35배나 증가하였고, 2006년 말 현재는 1,000배 이상 증가한 1,078.4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로서 중국은 대만의 첫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대만은 중국의 다섯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1983년부터 간헐적으로 나타

났지만 대만정부가 대중국 투자를 공식 허용한 1988년부터 본격화되어 2006년 말 현재는 누계기준으로 72,277건에 483.94억 달러가 투자되어 중국은 대만의 첫 번째 투자대상국이 되었고, 대만은 중국의 다섯 번째 투자유치국이 되었다.

양안간의 이러한 경제교류 발전은 상호간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대만의 수출확대를 촉진시켜 성장의 효과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에게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보전(補塡)과 고용창출 그리고 기술이전 등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대만의 산업 공동화 촉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분단국가이며 경제성장 단계가 비슷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시사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국내에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된 연구는 김시중(1993년)의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서석홍(1997)의 "臺灣企業의 對中國投資와 兩岸經濟統合."(중소연구) 그리고 魏艾·范錦明·趙顯竣(2003)의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이미 최소 4-5년 전의 연구이어서 최근의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의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대만기업들이 최근에 초기의 노동집약적 가공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던 패턴에서 기술집약적인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과 광둥성(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편중구도에서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업의 군집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를 빠르게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대만경제에 가져다 준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의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 추이

1. 대중국 투자의 전반적 변화 추이와 규모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간헐적이지만 1983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1987년 말까지는 계약 누계기준으로 80여건에 1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1988년에 이르러서야 350건에 5억 달러에 이르는 등 본격화되었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이처럼 1988년부터 본격화된 것은 1987년 10월 대만정부가 그 동안 대만주민들에게 중국 입국조차 금지하던 강력한 통제정책을 바꿔 대만주민의 중국내 친척방문(大陸探親)을 허용하고, 또 그 동안 강력하게 통제하던 외환도 상당 수준 완화해 주는 등 대만기업들로 하여금 대중국 투자 진출의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1] 여기에다 중국정부

가 이 시기 대만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만동포에 대한 투자 장려 규정'(鼓勵台灣同胞投資規定)을 공포하여 대만기업에게 법적인 보호와 우대조치를 제공해 준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표 1〉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년 도	중국측 통계			대만측 통계		
	건수	협의금액	실투자액	허가건수	허가금액	해외직접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
1987	80*	100*	na	na	na	na
1988	350	5.00	na	na	na	na
1989	539	4.32	1.55	na	na	na
1990	1,103	8.90	2.22	na	na	na
1991	1,735	13.89	4.66	237	1.74	9.52
1992	6,430	55.43	10.51	264	2.47	21.78
1993	10,948	99.65	31.39	9,329**	31.68**	40.71
1994	6,247	53.95	33.91	934	9.62	37.31
1995	4,847	58.49	31.62	490	10.93	44.61
1996	3,184	51.41	34.75	383	12.29	36.21
1997	3,014	28.15	32.89	8,725**	43.35**	35.82
1998	2,970	29.81	29.15	1,284**	20.34**	31.55
1999	2,499	33.74	25.99	488	12.53	27.71
2000	3,108	40.42	22.96	840	26.07	33.93
2001	4,214	69.14	29.80	1,186	27.84	38.80
2002	4,853	67.41	39.71	5,440**	67.23**	53.38
2003	4,495	86.00	33.77	10,105**	76.99**	53.66
2004	4,002	93.06	31.18	2,004	69.40	67.03
2005	3,907	103.58	21.52	1,297**	60.07**	71.05
2006	3,752	na	21.36	1,090	76.42	63.91
누계	72,277*	na	438.94	44,096**	548.97**	na

주: *는 이전까지 누계 추정치이며, **는 이전의 투자 중 사후 등록한 수치를 포함한 것임.
자료: 龍芝(1990), 13; 台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統計資料; (中國投資指南) http://www.fdi.gov.cn(검색일: 2007. 11. 5)에서 필자 정리.

1) 대만정부는 1987년부터 외환통제를 상당 폭 자유화하여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1년에 500만 달러까지 외환반출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시기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만정부가 취한 중국내 친척방문 허용과 외환 자유화 조치 등의 조건하에서 대만기업인들이 다량의 외환을 소지하고 친척방문이나 관광 등의 명목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투자환경을 고찰하는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투자한 경우이거나, 대만기업들이 대만의 법망을 피해 제 3국을 경유하여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빠른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급증은 대만정부가 '대륙지역물품관리법'(大陸地區物品管理辦法)(1989년)과 '대륙지구의 간접투자 및 기술합작관리법'(對大陸地區從事間接投資或技術合作管理法)(1990년)을 공포하여 제 3국을 경유한 대중국 교역과 간접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1990년 이후부터이며, 그 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2006년 말 현재 실투자액 누계기준으로 438.9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수치는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 이유는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제 3국을 경유한 간접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2]

2)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대만정부의 三不政策(不接觸, 不談判, 不協商)원칙에 따라 제 3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용어에 있어서 해외간접투자는 흔히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기업의 대중국 간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같다(金時中 1993, 45-46) 참조.

〈표 2〉 주요국의 대중국직접투자 현황(2006년 말 누계기준)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건수	실투자액
1	홍콩	269,555(48.62)	2,797.55(39.74)
2	버진군도 등자유무역항	24,460(4.41)	798.69(11.35)
3	일본	37,714(6.80)	579.73(8.24)
4	미국	52,211(9.42)	539.55(7.66)
5	대만	71,847(12.96)	438.93(6.23)
6	한국	43,130(7.78)	349.99(4.97)
7	싱가포르	15,556(2.81)	300.04(4.26)
8	영국	5,359(0.97)	139.22(1.98)
9	독일	5,338(0.96)	134.18(1.91)
10	프랑스	3,271(0.59)	78.02(1.11)

주: 순위는 실투자액 기준임

자료: 《中國投資指南》http://www.fdi.gov.cn(검색일: 2007. 11. 5)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상호간의 경제적 보완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대만은 80년대 중반부터 대내적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노사분규 빈발, 지가상승, 환경보호 의식의 대두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주의 대두와 환율인상 등의 요인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지만(黃天中 외 1993, 341), 반면에 중국은 방대한 인구로 인한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공장부지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대만기업의 투자 진출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확대가 가능할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또 민족 및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黃安余 1996, 40-41). 양안간의 이러한 경제적 보완성과 이점으로 인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증가는 대만정부의 규제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예컨대 대만정부는 1993년에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기업의 동남아지역 진출을 유도하는 '남향정책'(南向政策)을 추진했지만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고, 1995년 6월 당시 대만총통이었던 리덩후이(李登輝)가 미국을 방문하여 양안의 긴장관계가 극에 달했지만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표 1> 참조). 또한 1996년에 대만정부가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진출을 규제할 목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다는 '제지용런'(戒急用忍) 정책을 발표하며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는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지하였지만(夏樂生 2000, 92-106), 역시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정부는 그 동안의 대중국 투자 제한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특히 민진당(民進黨) 집권 이후인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대만정부는 '제지용런'정책에서 전면개방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개방과 효율적인 관리'(積極開放, 有效管理)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과거 '제지용런' 정책이 제 3국을 경유한 대중국 진출 대만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소위 '경제안전'을 고려하는 가운데 대만기업의 지속적인 능력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정책이다.[3] 이에

3) 民進黨 집권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대만의 대중국 투자정책은 '적극적인 개방과 효율적 관리'(積極開放, 有效管理)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세계경제구도에서 대만 우선의 상호 윈윈(win-win)과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기업의 개별 상한과 표준 등을 적절하게 개방함과 동시에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중국 투자기업의 대만 귀국투자도 장려하

따라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2002년에 사상 최고액수인 39.7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빠른 발전을 하였다(<표 1> 참조). 다만 2005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대만기업 중 일부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등을 이유로 베트남으로 투자를 전향한 것[4]외에 상당수 기업이 조세피난처(tax haven)인 버진군도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항을 통해 투자진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5]

2. 업종별, 지역별 투자 변화

대중국 투자진출 초기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당시 대만경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해외이전이 필요한 신발, 의류, 우산, 가방, 완구, 자전거 등의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한 '양두재외'(兩頭在外)[6]의 '삼래일보'(三來一補)[7] 방식의 투자가

고 있다. 대만의 '積極開放, 有效管理'에 관한 全文 내용은 (臺灣大陸委員會)http://www.mac.gov.tw/(검색일: 2007. 4. 5) 참조.

4) 최근 들어 대만기업의 해외투자는 그 동안의 대중국 투자 일변도에서 베트남에 2007년 4월 22일까지 누계기준으로 83.53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중국이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수출환급정책 등의 대외경제정책 조정과 인민폐절상 문제 그리고 2008년부터 실시될 새로운 노동법으로 인한 노동원가 상승 및 중국의 연해지역에서 지렴한 노동력 확보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으로 분석되고 있다(康榮寶 2007, 13-17 참조).

5)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버진군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920.78억 달러이며 이중 95%인 874.74억 달러가 대만기업을 포함한 화교기업의 자본으로 파악되고 있다(沈丹陽, 2007)

6) '兩頭在外'는 원료공급과 판매를 모두 해외시장에 두는 것을 말한다.

7) '三來一補'는 가공무역의 형식으로 하청생산을 말하는데 다음 4가지가 있다. ①來料加工(processing on commission): 외국의 발주자로부터 원료, 부품 및 포장 재료를 수입(제공)하여 가공한 제품을 발주자가 인수하는 貨加工, ②來樣製作(manufacture on the basis of sample): 외국의 발주자가 제공한 견본 또는 작업 지시서에 따라 가공하는 것으로 원료는 중국산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제품을 발주자가 인수함, ③來料裝配: 외국의 발주자가 부품을 제공하고 중국 측에서 조립한 후 발주

중심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에 투자한 상당수 대만기업들은 대만으로부터 기계설비와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받아 중국의 값싼 토지임대료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후 제 3국 시장에 재수출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만은 상당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劉震濤 외 2006, 7-10).

그러나 대만기업의 이러한 단순 노동집약형 업종의 대중국 투자는 1994년부터 점차 자본과 기술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된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즉 전통적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자본기술 집약형 내지 하이테크산업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투자도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진출 초기에 중심을 이루었던 전형적인 노동집약형 업종인 식음료와 플라스틱제품은 1992년에 각각 18.79%와 18.20%이었지만 2005년에는 0.89%와 1.84%로 대폭 감소했고, 반면에 하이테크산업으로 분류되는 전자전기 업종이 39.8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기본금속(10.73%), 정밀기계(6.21%), 화학제품(6.05%), 기계 제조업(5.24%)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요인은 전통적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대중국 투자가 이미 중국 연해지역의 인건비 상승 및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생존과 경쟁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활로를 찾아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자가 인수함, ④補償貿易(compensation trade): 외국기업이 원료 및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생산물로 그 대가를 상환하는 일종의 생산물 분배방식이다(盧哲和 외 1998, 304).

〈표 3〉 대만기업의 주요 업종별 대중국 투자 비중의 변화(1992-2005)

단위: %

업 종 별		1992	199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림어업		0.00	0.98	0.22	0.37	0.43	0.48	0.05	0.13
광 업		0.25	0.28	0.01	0.04	0.17	0.28	0.44	0.54
제조업	제조업 전체 평균	99.75	91.96	91.45	90.31	90.40	88.55	90.55	87.93
	식음료 제조업	18.79	15.16	1.66	2.10	2.27	4.59	1.29	0.89
	방직업	9.42	4.35	1.52	0.81	1.90	4.17	2.12	2.28
	화학제품 제조업	5.17	9.29	4.25	5.88	7.06	7.73	6.51	6.05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20	7.62	7.09	5.61	5.93	5.36	3.99	4.26
	기본금속 제조업	4.32	9.39	7.05	6.96	9.39	9.28	10.68	10.73
	기계 제조업	1.62	4.02	2.32	4.18	3.46	3.66	2.36	5.24
	전자전기 제조업	13.99	16.32	56.18	45.08	38.95	30.26	43.86	39.89
	정밀기계 제조업	7.29	4.59	3.25	4.53	6.45	6.21	4.44	6.21
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체 평균	0.00	6.49	8.11	8.47	8.85	10.35	8.71	10.87
	소매 및 도매업	0.00	1.41	2.11	3.54	1.28	1.30	1.70	2.81
	국제무역업	0.00	0.79	0.12	0.66	0.90	0.98	0.89	1.76
	요식업	0.00	0.25	0.00	0.05	0.05	0.26	0.24	0.31
	교통운수업	0.00	1.37	0.06	0.49	0.76	0.16	0.12	1.49
	창고업	0.00	0.15	0.30	0.10	0.25	0.18	0.17	0.19
	금융보험업	0.00	0.00	0.00	0.01	0.35	3.54	0.96	0.72
	서비스업	0.00	2.08	4.91	3.35	4.33	3.74	3.82	3.60
	기타	0.00	0.45	0.61	0.27	0.91	0.20	0.79	0.00

자료: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통계자료에서 필자정리

한편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지역적 분포는 초기에는 광동성과 푸젠성이 중심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창장삼각주의 화동지역과 뽀하이(渤海)만이 있는 화북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지역의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광저우(廣州)와 동관(東莞), 선전(深圳)을 중심으로 한 광둥성 지역에 10,000개 이상과 푸저우(福州)

와 샤먼(廈門)를 중심으로 한 푸젠성 지역에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하는 등 이 지역이 전체 대중국 투자의 50% 이상 집중되었었다(金伯生 외, 2007).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 화동지역의 투자가 대폭 증가됨과 동시에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지역으로 대표되는 환발해경제권의 화북지역 투자도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쓰촨성(四川省)의 청뚜(成都)와 충칭(重慶)을 중심으로 한 기타지역의 투자도 미약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표 4> 참조).

〈표 4〉 대만기업의 지역별 대중국 투자 변화 추이(대만정부 허가기준)

단위: 억 달러/(%)

年別	總計	華北地域				華東地域					華南地域				其他地域(2)
		計	北京市	天津市	其他地域(1)	計	上海市	江蘇省	浙江省	其他地域(1)	計	廣東省	福建省	其他地域(1)	
1996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997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998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999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00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00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002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003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004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005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006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주: 1) 2002-2003년 수치는 이전의 투자 중 사후 등록한 수치를 포함한 것임
2)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기타지역 (1)은 해당지역 중 상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기타지역 (2)는 중국전체에서의 기타지역임

자료: 臺灣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통계자료에서 필자 정리

대만기업의 이러한 투자진출 지역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업종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대만경제구조의 전환과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양안 경제통상정책의 상호관계, 국제경제 환경, 즉 경제글로벌화 및 경제블록화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魏艾외 2003, 30),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화동지역은 전자전기 업종의 투자가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중 40%가 전자전기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전자 업종 중 80% 이상이 화동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8] 대만의 전자전기 업종이 화동지역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 분야의 대만기업 투자가 초기의 노동집약형 업종진출에서 점차 기술력이 제고된 자본집약형의 투자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이 창장삼각주의 대표지역으로 자본집약형의 업종 발전이 유리하기 때문이다.[9] 둘째, 하북지역의 투자증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환발해경제권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金伯生외 2007). 셋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타지역으로의 투자확산은 그곳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제공되는 우대조치와 풍부한 자연자원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姚志東 2006).

8) 2005년 10월 말 현재 화동지역의 上海, 蘇州, 昆山, 杭州 등 4개 도시에 투자된 대만기업 중 전기전자 업종만 1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金伯生 외 2007 참조).

9) 일반적으로 珠江三角洲 지역은 노동 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長江三角洲 지역은 자본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419-455 참조)

Ⅲ.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의 특징

1. 투자진출 경로의 다양화와 진출 산업의 군집화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대만정부의 정치적 입장인 삼불정책(不接觸, 不談判, 不妥協)에 따라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제 3국을 경유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경로로는 그 동안 ① 대만경제부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② 대만기업이 수출대금 중 일부를 대륙투자로 전용하는 것, ③ 관광 등의 명목으로 여행하면서 자금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대륙에 투자하는 것, ④ 1인당 매년 500만 달러까지 외화반출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먼저 홍콩의 비은행 금융기관 체계의 투자자문회사에 예치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대륙에 투자하는 것, ⑤ 다중국적을 가진 대만 기업가가 대만 투자에 관한 대만정부의 규제는 회피하고, 대륙에서는 대만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 등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대부분 홍콩을 경유해 이루어졌다(김시중 1993, 30). 이런 상황에서 홍콩은 단순히 대만기업의 대중국투자 경유지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보경험의 제공자'와 '중계자'(demonstrator and middle-man) 그리고 중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능을 담당해 왔다(김시중 1993, 49-50). 따라서 홍콩은 그동안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전진기지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진입 후,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진출이 시도되고 있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측 통계의 실투자액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감소현상을 보여 왔다. 특히 2005년에는 전년보다 10억 달러나 급감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당시 대만기업의 해외투자가 베트남으로 상당부분 이전한 이유도 있지만 조세피난처(tax haven)인 버진군도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항을 통해 투자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표 1>의 대만측 통계에서 대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 대중국 투자 비중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검증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진출 경로가 그동안의 홍콩일변도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진출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출하는 것 외에 다국적기업들과 전략적 연계를 통한 진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이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대만경제가 중국보다 일찍 시장화가 되었을 뿐 아니라 대만기업이 세계의 다른 기업들보다 중국 이해도가 높고 또 세계에 대한 이해도 중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러한 현상의 지속적 확대는 대만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진출 중계자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曾嘉외 2007).

한편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산업의 군집화(industrial clustering)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군집화는 90년대 전반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90년대 초기에는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집단으로 합작하여 상하유기업(上下游企業)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역에 집중하면서 시작되었고, 90년대 후기에는 대형 대만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형기업간의 분업협력과 상하유기업간의 연계 및 하청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동관에서는 따중컴퓨터회사(大衆電腦公司), 웨이싱과학기술회사(微星科技公司), 홍

여우과학기술회사(鴻友科技股份公司), 웬싱컴퓨터과학기술회사(源興電腦科技有限公司), 메이거전자회사(美格電子有限公司) 등 대만의 유명 IT기업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소형기업간의 하청관계가 형성된 IT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쑤저우(蘇州)에서는 핵심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상호 필요에 따라 군집을 유도하는 형태로 전자산업의 중요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金伯生외 2007).

이러한 산업의 군집화는 2000년도 진입이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공업화의 발전과 우수인력이 많아짐에 따라 대만 대형기업의 투자가 더욱 증가함과 동시에 많은 상장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대만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이 동반 진출하여 대기업의 주변에 공장을 설립함으로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편 대만기업의 이러한 산업의 군집화 중 가장 큰 특징은 IT 및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주장(珠江)삼각주지역, 그중에서도 상하이 인접지역인 쟝쑤성(江蘇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쟝쑤성의 쿤산(昆山)지역은 2005년 말 현재 649개의 전자정보업체가 진출해 있는 등 대만 전자정보산업의 최대 군집지역으로 발전하였다(劉震濤 외 2006, 65). 이는 상하이 지역이 전자정보산업 투자지로서 노동력의 수준이나 시장개척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토지가격이나 임금 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상하이와 지근거리에 있으며 물류가 편리한 쟝쑤성 남부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만의 대형 IT업체, 예컨대 홍지(宏碁), 홍리(宏力), 런바오(仁寶), 광다(廣達), 화숴(華碩), 화위(華宇), 따중(大衆), 룬페이(倫飛), 홍하이(鴻海), 타이다뗀(台達電), 롄뗀(聯電), 잉예다(營業達), 중신(中芯), 타이룽(泰隆) 등 상당수 기업들이 상하이 포동지역에서 쟝쑤성의 우쉐(吳縣)지역에 이르는 직경 120km이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10]

2.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화 가속

대중국 진출초기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주로 '양두재외'의 '삼래일보' 형식의 가공무역형의 투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현지화는 그리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원부자재의 조달을 비롯한 제품의 판매, 간부의 채용, 경영자금의 확보 및 제품의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현지화가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원자재의 경우, 1995년까지는 대만으로부터 50.47%를 제공받고 나머지 중 35.41%를 중국에서 그리고 12.22%를 기타국가에서 수입하였지만, 그 추세가 점점 변하여 2005년에는 대만에서 제공받는 비중이 35.62%로 감소하고 중국에서의 조달은 52.71%로 증가되었다. 부품 및 반제품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증감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5> 참조). 이러한 이유는 중국의 공업생산 체계의 개선과 조달제품의 품질제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진출 특성이 어떤 하나의 산업분야에 진출했을 때 관련 상하유기업이 뒤따라 진입하여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산업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5>의 원재료의 현지조달 비중 중에서 현지 대만기업이 제공하는 비중이 높은데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

10) 이와 관련된 내용은 http://bbs.wswire.com/(검색일: 2007. 4. 23) 참조.

〈표 5〉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원자재 및 부품·반제품의 조달 현황

단위: %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3	2004	2005
원자재	대만제공		52.47	50.31	45.15	49.80	43.16	39.32	35.06	35.62
	현지조달	계	35.41	37.06	41.99	37.95	43.80	47.85	51.83	52.71
		현지 대만 기업 제공	17.22	17.57	21.02	18.06	21.85	25.52	25.93	26.18
		현지 비대만 기업 제공	18.19	19.49	20.97	19.89	21.95	22.33	25.90	26.53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		12.12	12.63	12.86	12.25	13.04	12.93	13.11	11.67
부품 및 반제품	대만제공		56.26	53.04	47.99	52.86	46.56	46.11	40.88	39.65
	현지조달	계	37.04	39.09	44.05	39.15	45.52	46.62	51.44	52.61
		현지 대만 기업 제공	18.26	18.56	22.06	20.56	23.98	24.87	25.00	26.49
		현지 비대만 기업 제공	18.78	20.53	21.99	18.59	21.54	21.75	26.44	26.12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		6.80	7.86	7.97	7.98	7.92	7.27	7.68	7.74

자료: 臺灣 經濟部 統計處 「製造業對外投資實況調查報告」; 洪德生 (2006) http://www.tier.org.tw(검색일: 2007. 10. 3)에서 필자 정리.

한편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이러한 원자재 현지조달 추이는 중국의 경제적 환경변화와 대만기업의 진출 추이, 즉 관련 상하유기업의 동반진출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측면에서 대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즉 대중국 투자기업의 원자재 현지조달 증가는 그 동안 대만이 대중국 투자로 누렸던 수출 효과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 또 양안경제가 분업과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洪德生, 2006)

대만기업의 현지화는 제품판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05년도 대만기업의 내수시장 비중은 48.%로 1993년

의 35.4%보다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외수출은 1993년의 52.6%에서 2005년에는 34.3%로 감소되는 등 대만기업 제품의 내수시장 비율이 대폭 증가되었다(高長 외 2007, 4) 그러나 대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과는 진출 비중에 비해 아직 이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컨대 대만전국공업총회(臺灣全國工業總會)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자의 70.3%가 중국의 내수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피력한 반면 성공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1%로 대부분이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洪德生 2006). 이에 따라 최근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제품 중 대만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이 중국의 반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대만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지적되어 대만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기도 하다(高長외 2007).

또한 대만기업의 현지화는 기업간부의 고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기술 인력이나 관리업무는 모두 대만인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간관리자의 경우 상당수준 중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예컨대 동관의 한 기업의 경우 원래 대만 국적의 간부가 10명이었으나 현재는 기업의 규모가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간부는 3명에 불과한데 반해 부총경리(副總經理) 및 총공정사(總工程師) 이하의 간부는 모두 중국인으로 대체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대만기업 중에는 훈련을 거쳐 동남아 국가 등에도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11] 대만기업의 이러한 중간간부의 현지인 고용은 중국의 인력수

11) 珠海의 한 대만기업은 직원 1,000명 정도 규모의 기업을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진입하면서 3명의 대만기업 간부만 제외하고 30여명의 중간계층 간부를 모두 珠海 공장의 중국 국적 간부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車曉蕙 2007) 참조.

준 제고와 저렴한 임금 외에 현지시장 개척에 중국인의 간부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인의 간부들이 금전적 유혹에 따른 공금횡령과 기업 내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후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직하고 창업하는 경우 등이 있어 현지화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2]

이밖에도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현지화는 경영관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경영자금의 조달에서 규모는 작지만 전체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43%가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孫升亮 2007), R&D에서도 상당 수준 현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R&D의 현지화는 대만기업의 내수시장 비중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지의 소비자 기호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개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은 지역이 넓을 뿐 아니라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크고 또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등이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문에 대한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R&D의 현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상당수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캉스프(康師傅)와 통이(統一)의 사발면, 왕왕(旺旺)의 과자, 뤄마(羅馬)의 사기벽돌, 허청(和成)의 위생용기, 잉화(櫻花)의 주방기구, 제안터(捷安特)의 자전거, 다푸닌(達芙妮)의 여성용 신발, 홍지·화쑤오(宏碁·華碩)의 컴퓨터 등이 중국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성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高長외 2006, 4). 현재 대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R&D 현지화는 아직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기술지원 중 8할 이상을 대만기업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을 정도로 현지화 수준이 높지 않다.[13] 그러나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비롯한 광범한 지역에 많

12) 이와 관련된 내용은 http://www.seftb.org(검색일: 2007. 10. 4) 참조.

은 R&D센터를 많이 설립하고 있어 대만기업의 R&D 현지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 할 것으로 보인다.

3. 투자산업의 분업구도 변화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수직분업 구도가 중심이었다. 예컨대 전통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그동안 대만이 원자재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한 반면 중국에서는 제조생산이 중심이었고, 방직업 및 의류업 등도 대만에서는 R&D와 시장개발을 담당한 반면 대륙에서는 제조생산이 중심이었다. 물론 하이테크 산업 같은 경우 대중국 투자 진출 이후에도 대만의 산업과 여전히 밀접한 분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평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했다. 즉 소량의 고기술 및 고가제품의 생산은 대만에서 생산하고 저기술 및 저가제품은 대륙에서 생산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이테크산업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수직분업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컨대 제품의 생산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대만과 중국이 갖는 각각의 우위조건에 따라 분업 생산하고 마지막으로 대만에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와 IC(integrated circuit)산업 등의 분업은 모두 이러한 분업 모델을 채택한 경우이다(高長외 2006). 이러한 수직적 분업체계는 양안간의 교역 폭을 확대시켜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표 6> 참조). 즉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들이 대만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대만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시킨 반면에 중국에

13) 이와 관련된 내용은 http://www.moea.gov.tw(검색일: 2007. 10. 7) 참조.

투자한 대만기업들이 제조한 부품과 반제품 그리고 심지어 완제품의 일부까지 대만으로 수출되어 대만의 대중국 수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되었다.

〈표 6〉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입의존도	4.76	4.65	5.18	5.79	5.98	6.01	7.24	8.61	9.97	11.18	12.02
수출의존도	23.70	23.64	24.07	23.19	23.48	23.97	25.84	31.23	34.51	36.69	37.82
무역의존도	14.58	14.72	14.91	14.72	15.13	15.24	17.16	20.74	22.98	24.15	25.18

자료:대만무역통계

그러나 최근 들어 양안간의 이러한 투자 분업구조는 '대만주문'(臺灣接單)과 '대륙생산'(大陸生産)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즉 대만기업들이 중국을 총체적 생산기지로 정하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대만 본사의 생산영역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판매, R&D, 자금관리 등에 집중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대만 경제부 통계처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만의 대외수출품 중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005년도에 이미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플라스틱 제품, 정밀기기 등의 소수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수출 주문품의 중국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목죽가구의 경우는 수출주문의 73%가 이미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蔡宏明 2005, 25-57). 이러한 현상은 대만기업의 생산라인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대만기업의 생산라인 중국이전 현상은 전자정보산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대만의 전자정보관련 하드웨어 생산은 1995년에 195억 달러였지만 2005년에는 800억 달러로 3.1배

증가되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두 번째 생산국이 되었지만 대만에서의 생산은 1995년의 72%에서 2005년에는 6.8%로 감소되고 중국에서의 생산은 14%에서 79.5%로 증가되는 등 대대적인 이전이 이루어졌다(高長 2006, 5). 한편 전자정보산업의 대중국 생산라인 이전은 R&D의 이전까지 촉진 시켰다. 그러나 전자정보산업의 이전에 따른 R&D의 이전은 대만 본사의 R&D와 중국 현지의 R&D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만 본사의 R&D는 대체로 국제시장 진출과 개발단계의 제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의 R&D는 내수시장 개척과 이미 성숙단계에 있는 제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대만 본사는 비교적 하드웨어와 제품개발 그리고 제품의 생산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의 연구개발은 소프트웨어와 기초연구 그리고 제조과정의 조정 및 인증 등의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中華經濟研究院 2004, 43). 이러한 연구개발의 분업은 대만과 중국이 각각 갖는 비교우위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대중국 생산라인 이전은 따중컴퓨터회사(大衆電腦公司) 같이 대만의 생산라인을 완전히 정리하고 중국과 해외로 모두 이전한 경우도 있으며(金伯生 외 2007),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4] 이러한 현상은 대만의 산업 공동화를 부추겨 대만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산업공동화 가능성 예측은 양안 두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제품 인식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즉 대만제품이 중국제품보다 고급이라는 인식을 가진 대만기업인들은 2000년에는 1/3이상이었으나 2005년에는 19%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정밀기계업 생산업자들의 경우 대만제품이 고급이라는 견해가 10%이하

14) http://2k3dmz2.moea.gov.cn(검색일: 2007. 10. 4) 참조

로 낮게 평가하는 등 두 지역에서 생산된 동일제품의 품질수준 평가에서 대만제품과 중국제품간의 수준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封小云, 2007). 이는 대만의 제조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향후 대만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에 직접적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Ⅳ.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효과와 향후 발전 전망

1. 대중국 투자 효과 평가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대만경제에 미친 효과는 무엇보다 우선 수출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초기인 90년대 초에는 69.28억 달러(1991년)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말 현재는 633.32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兩岸經貿 2007, 54). 대만의 이러한 대중국 수출 증가는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즉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이 중국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제품 수출이 80% 이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15] 내구 소비재를 포함한 기타 수출품의 비중이 각각 전체 수출품의 비중에서 대부분 1%미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7> 참조). 한편 이처럼 대만기업

15) 대만의 대중국 수출 증가가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 졌다는 초기에 많이 진입한 [표 7]의 기계설비의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의 대중국 투자진출 확대로 증대된 대만의 수출증대는 대만의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칭화대학(淸華大學) 대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도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대만의 GDP성장에 기여한 공헌은 14.06%이며(<표 8> 참조), 이는 1인당 1,788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만의 경제성장을 1.9%포인트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이다(劉震濤 외 2006, 12).

〈표 7〉 대만제품의 대중국 구조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림어업목축 수렵제품		0.35	0.42	0.30	0.25	0.21	0.18	0.18	0.15	0.11	0.08	0.06	0.05	0.07
식품가공제품		0.22	0.21	0.24	0.18	0.14	0.12	0.15	0.18	0.14	0.10	0.11	0.09	0.10
음료 및 연초 제품		0.02	0.03	0.01	0.01	0.00	0.00	0.01	0.01	0.01	0.00	0.00	0.00	0.00
광업 및 에너지관련 제품		0.07	0.07	0.09	0.14	0.13	0.16	0.17	0.11	0.07	0.04	0.04	0.05	0.06
건축자재		0.08	0.09	0.11	0.10	0.13	0.08	0.08	0.06	0.04	0.04	0.04	0.03	0.02
중간 제품	중간 제품 계	63.67	69.65	74.41	73.80	79.21	81.05	79.91	78.82	78.61	78.55	80.39	82.96	84.51
	중간 제품 A	22.54	26.31	30.12	30.90	33.94	34.65	33.84	34.34	34.82	31.61	29.07	26.16	25.88
	중간 제품 B	41.13	43.34	44.29	42.95	45.27	46.40	46.07	44.48	43.79	46.94	51.32	56.80	58.63
비내구재 소비재 제품		3.54	3.50	3.40	3.23	3.03	3.10	2.53	2.06	1.71	1.66	1.46	1.55	1.78
내구 소비재 제품		0.78	0.72	0.61	0.46	0.51	0.59	0.61	0.60	0.81	0.87	0.79	0.40	0.31
기계설비		30.55	24.49	20.56	21.61	16.52	14.62	16.17	17.88	18.38	18.54	16.92	14.83	13.12
운수설비		0.71	0.83	0.27	0.18	0.12	0.09	0.18	0.13	0.14	0.13	0.18	0.02	0.03

주: 중간제품 A는 가공을 통해야 소비재 혹은 생산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중간제품 B는 가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재 혹은 생산재로 사용할 수 있는 중간제품임
자료: 臺灣經濟研究院 자료.

〈표 8〉대만의 GDP 구성 구조

단위: %

년도	국내총생산(GDP)	민간소비	정부소비	국내총투자	대외무역흑자	대중국무역수지 흑자
1992	100.00	55.96	16.73	25.52	1.78	2.64
1994	100.00	58.38	14.57	25.38	1.67	4.81
1996	100.00	59.13	14.30	23.20	3.37	4.79
1998	100.00	59.67	14.32	24.91	1.10	4.60
2000	100.00	61.90	12.90	22.89	2.13	6.98
2001	100.00	63.56	13.05	17.69	5.70	8.22
2002	100.00	63.08	12.64	16.87	7.41	11.21
2003	100.00	62.82	12.61	17.64	6.93	14.06

자료: 劉震濤·江成岩·王建芬·張新編著(2006).

그러나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로 인한 수출증대는 <표 9>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존의 대외수출 구조를 변화시키고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증대시키고 있어서 중국경제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동안의 양안간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로 불가피한 현상이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적 환경 변화와 양안의 경제교류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기간이 길어지고 또 현지화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만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제품이 대중국 수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대만으로서는 큰 타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표 9〉 대만의 대외수출 구조

단위: %

년도	미국		일본		EU		중국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증가율	점유율
1999	5.2	25.4	27.6	9.8	3.5	16.7	11.0	23.7
2000	12.7	23.5	39.5	1.2	16.7	16.0	24.4	24.2
2001	-20.6	22.5	-23.1	0.4	-1.7	16.1	-10.8	26.0
2002	-3.2	20.5	-6.0	9.2	-6.3	14.2	28.7	31.2
2003	-3.1	18.0	-0.5	8.3	10.9	14.2	22.1	34.5
2004	8.4	16.2	10.8	7.6	14.6	13.5	28.3	36.7
2005(1-10)	1.6	15.3	8.0	7.7	-0.7	12.3	8.4	37.4

자료: 臺灣經濟研究院(2005); 劉震濤·江丙坤·王建芬·張銘編著(2006)에서 재인용.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산업구조 조정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진출 초기 대만의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였다. 그러나 대만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그 동안 노동집약적이고 초보적인 가공업을 중심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대만의 산업구조를 가일층 고도화시키는 역할이 되었다. 예컨대 대만 경제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타이삐(新台幣) 2억원 이상 투자한 민영기업 중 기술집약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14%정도였으나 2000년도에는 57%로 증가하였고 노동집약적 산업은 42%에서 8%로 하락하였다.[16]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최근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현지화 추세, 특히 산업 군집화 형성에 따른 전반적 산업의 대중국 이전 추세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넘어서 산업의 공동화가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

16) http://www.moea.gov.tw/(검색일: 2007. 10. 7) 참조.

2. 향후 대중국 투자의 발전 전망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진출 초기인 1988년에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말 현재는 누계기준으로 440억 달러에 이르는 등 빠른 발전을 해 왔다. 또한 투자업종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진출지역도 광둥성과 푸젠성 중심에서 창장삼각주 지역을 비롯한 환발해만 지역과 중서부내륙 지역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만기업의 이러한 대중국 투자 발전 추세는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 구조와 양안간의 경제적 의존관계 심화 그리고 대만기업의 해외투자 중 대중국 투자가 갖는 우위요인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 장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이 대만기업의 생산기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과 대부분의 대만기업들이 중국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비용의 절감과 성장하는 시장의 개척 측면 등에서 다른 해외지역의 투자보다 매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17] 그러나 향후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대중국 투자 진출에 따른 대만경제의 영향 등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이는 비단 대만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17) 대만경제부 통계처에서 조사 분석한 『2007年製造業對外投資實況調查結果分析』(2007年5月調查)에 의하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아직도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비용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 개척과 조세 등을 비롯한 우대조치, 외국바이어의 요구, 현지 원재료 이용 등과 동일업종의 중국투자에 따른 동반이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ttp://www.moea.gov.tw/(검색일: 2007. 10. 7).

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대만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아직도 생산비용의 절감과 생산 제품의 수출이 중심인데 반해 중국의 투자환경은 토지비용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여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대만기업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불리한 런민삐(人民幣)의 평가절상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또한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과거 전형적인 생산비 절감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상당 수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 수준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중국에서 베트남 등의 지역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康榮寶 2007, 14). 물론 대만기업의 베트남이전 투자는 생산비용의 절감 차원 등을 비롯한 경제적인 요인 외에 대만기업의 과도한 중국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요인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康榮寶 2007, 15).

둘째는 대중국 투자 진출로 인한 대만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미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대만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출의 확대 등 대만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표 1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증가됨과 동시에 대만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산업 공동화의 촉발 가능성과 대중국 투자의존도 가속으로 인해 대만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대만의 산업공동화 촉발 가능성은 이미 2000년도에 대만기업이 국내외에서 생산된 PC관련 기기의 총생산액 중 약 40%가 중국

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PC 및 주변기기 생산 중 70% 이상이 대만계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魏艾 외 2003, 68). 특히 과거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생산라인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 공동화 현상의 촉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대만기업의 이러한 산업공동화 현상 촉발 가능성은 아직 생산측면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용측면에서 제조업 종업원의 감소 경향이 1980년대 말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대만기업의 대외투자 중 대중국 투자비중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대만의 대외투자 총액(A)	대중국 투자액(B)	대중국 투자를 제외한 대만의 대외 투자액(C)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비중(B/A×100)	대중국 투자와 대외투자 비교(B/C)
1997	4,508.37	1,614.54	2,893.83	35.81	0.56
1998	4,815.51	1,519.21	3,296.30	31.55	0.46
1999	4,521.79	1,252.78	3,269.01	27.71	0.38
2000	7,684.20	2,607.14	5,077.06	33.93	0.51
2001	7,175.80	2,784.15	4,391.65	38.80	0.63
2002	7,228.81	3,858.76	3,370.05	53.38	1.15
2003	8,563.58	4,594.99	3,968.59	53.66	1.16
2004	10,322.68	6,940.66	3,382.02	67.24	2.05
2005	8,454.40	6,006.95	2,447.45	71.05	2.45
2006	11,957.77	7,642.34	4,315.43	63.91	1.77

자료: 臺灣 經濟部 統計資料에서 필자 정리.

한편 대만의 대중국 투자의존도 가속은 중국진출 대만기업이 중국에서 안정적인 경영확보의 어려움과 장기적으로는 대만경제의

대중국 종속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중국 투자진출 대만기업이 국제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고 있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외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실제로 대만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국 진출기업의 귀국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18]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귀국투자 한 기업이 46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呂國禎 2005). 물론 귀국기업 모두가 대만정부의 장려 및 중국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귀국 투자한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대만의 산업 공동화 촉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귀국투자는 대만경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Fujita 2006).

하지만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진출에서 그동안 주로 대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장애는 지금까지 양안간의 첨예한 대립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안간의 제도적 제한, 즉 삼통(通商, 通航, 通郵)문제의 미해결과 간접투자 및 간접교역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안간의 경제교류 형태는 진일보적 경제교류 발전에 분명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 대만정부는 대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귀국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06년 11월 『대만기업의 귀국투자 촉진을 위한 전문소조』(促進台商回台投資專案小組)를 설치하여 귀국 투자를 돕고 있을 뿐 아니라 귀국투자 기업에게 조세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兩岸經貿編輯部, 2007, 18-21) 참조.

참고문헌

金時中. 1993. 「台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대외경제정책연구원).

盧哲和·金昌洙·徐錫興 共著. 1998. 「中國企業의 所有形態別 經營特性」(集文堂).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2003 중국경제년보: 개혁개방의 현 단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석흥. 1997. "臺灣企業의 對中國投資와 兩岸經濟統合." 「중소연구」. 제21권 1호.

魏艾·范錦明·趙顯竣. 2003. 「대만기업의 對중국투자 현황과 전략·결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7. "台灣在大陸投資的地域差別與因素分析,". http://bbs.wswire.com/

「兩岸經貿」(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 1997年 10月號, p.54.

康榮寶. 2007. "台商利用越南平衡中國的投資風險," 「兩岸經貿」, 第190期(10月號).

高長·蔡依帆. 2007. "台商投資大陸與兩岸產業分工發展趨勢," 「兩岸經貿」. 第183期.

金伯生·畢平香. 2007. "台商在大陸投資現狀及發展趨勢,". http://www.hhhtswj.gov.cn/jjhz/(검색일: 2007. 7. 7)

臺灣經濟研究院. 2005 「臺灣經濟預測」(臺灣經濟研究院).

封小云. 2007. "關於台商投資的調研報告,". http://report.drc.gov.cn/drcnet/series.nsf(검색일: 2007. 10. 21)

孫升亮. 2007. "台商投資路線圖(2),". http://finance.memail.net(검색일: 2007. 12. 1)

沈丹陽. 2007. "華商企業對華投資基本情況, 新趨勢及引發的思考," 寧波市對外貿易合作局,". http://www.nbfet.gov.cn(검색일: 2007. 4. 5)

兩岸經貿編輯部. 2007. "回台投資, 租稅獎勵," 「兩岸經貿」. 第190期.

呂國賴. 2005. "四十六個商人返鄉故事," 「商業週刊」, 第28期. http://www.businessweekely.com.tw/(검색일: 2007. 10. 5)

姚志東. 2006. "台商投資大陸四面開花," 「台聲」. 第2期. http://www.tz.gov.cn(검색일: 2007. 10. 21)

魏艾. 1990. "台海兩岸經貿關係的發展及其限制," (第十一屆中韓學術會議發表論文).

劉震濤·江成岩·王建芬·張娟編著. 2006. 『招商引資-對台經濟合作方法和策略』 (清華大學出版社).

中華經濟研究院編. 2004. 『兩岸投資環境變化及我國投資政策之因應與調整』 (中華經濟研究院).

曾嘉·董會峰. 2007. "台學學者談台商投資大陸趨勢: 落戶生根意願漸强," http://www.ce.cn/cysc/(검색일: 2007. 10. 21).

車曉惠. 2007. "珠三角台商投資出現新模式," http://www. gd.xinhuanet.com(검색일: 2007. 10. 21)

蔡宏明. 2005. "中國高科技產業發展及台商大陸投資," 『經濟情勢暨評論季刊』. 第11卷第1期.

夏榮生. 2000. "'南向政策'與西進政策之比較-以台商投資非國與大陸福建省爲例," 『共黨問題研究』. 第26卷 第6期.

洪德生. 2006. "台商大陸投資經營變遷與風險,", 『臺灣經濟研究院』. http://www.tier.org.tw(검색일: 2007. 10. 3)

黃安余. 1996. "臺商投資大陸的動因及現狀剖析," 『經濟科學』. 第3期.

黃天中·張五岳編. 1993. 『兩岸關係與大陸政策』 (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Fujita, Masahisa and Nobuaki Hamauuchi. 2006. "The Coming Age of China-plus-One: The Japanese Perspective on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Second draft for The World Bank-IPS, Research Project on the Rise of China and India.

웹사이트

http://2k3dmz2.moea.gov.cn(검색일: 2007. 10. 4)

http://2k3dmz2.moea.gov.cn(검색일: 2007. 12. 10)

http://bbs.wswire.com(검색일: 2007. 4. 23)

http://www.fdi.gov.cn(검색일: 2007. 11. 5)

http://www.mac.gov.tw(2007. 4. 5)

http://www.moea.gov.tw(검색일: 2007. 10. 7)

http://www.seftb.org(검색일: 2007. 10. 4)

http://www.tier.org.tw(검색일: 2007. 10. 3)

ABSTRACT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Taiwanese Enterprise's Investment in China

Heur HeungHo

Professor,
MokWon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aiwanese enterprise's investment in China, and looks out over the future development. When it comes to Taiwanese enterprise's investment in China, Taiwan cross-strait is in a sharp conflict in this regard as divided countries, but it is true that Taiwan has been developed rapidly and highly advanced compared to any other country which is currently associated with China. In other words, Taiwanese enterprise's investment in China accounted for only $0.1billion in 1998, when the investment just began, but as of late 2006, the amount accounts for $44billion. Further, the involved industries are changing from labor-intensive industries to technology-intensive high-tech industries. As to regions to be invested, Guangdong and Fujian were the main targets for investment, but now various other regions including Changjiang delta are attracting investment. The form of investment as well is developing into the industrial clustering for productivity. In addition, localization of production and sales is being actively promoted. Such changes in Taiwanese enterprise's investment in China have contributed to export and industrial advancement of Taiwan, and further development is expected as the economic mutual complement between China and

Taiwan is firmly established. Future investment of Taiwanese enterprise's into China, however, will be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industrial hollowing out, which may result from the consistent investment of Taiwanese enterprise's into China. Even though such problems as government system and ideology, which have been raised in Taiwan, do not seem to bring huge effect, the fact that the issue of the systematic device between China and Taiwan(the three aspects, direct trade, mail exchange, and direct routes for flight and ship) still remains unsettled, and that the economic assoc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till indirect will bring some negative effect on the advancement in association between them.

Key Words : Taiwan cross-strait, Taiwanese enterprise's, Investment in China, Investment Strategy, Chinese Economy